지역불교 활성화하자

95년 6월27일 34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교구본사를 비롯 주요 종단의 큰 사찰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때 마침 문화관광부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고 지역간 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풀뿌리 문화를 되살려 문화적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발

사찰, 정신·문화 공동체 중심축

조계종,지역사찰 특성화 네트워크 구축

조계종 포교원과 24개 교구본사 전국 각 사암련과 사찰들이 사찰특성화, 포교네트워크 구성, 지자체와 시민단체 연대강화등 본격적인 지역불교 활성화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지역불교 네트워크사업에 따라 지역 거점사찰들이 인근지역 사찰과 협력을 강화해 불교정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한 환경등의 현안문제 해결등 지역불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 차원에서도 지역별 교양대학 설립, 지역전법단 구성, 지역순회 포교대회 개최, 지역사찰 특성화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불교 활성화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랍 28일 조계종 포교연구실은 15개지역 19개 사찰 현지조사결과서에서 지역사회와 사찰의 연계구축이 지역불교를 활성화하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찰의 지역 밀착도에 따라 포교의 바로미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지역밀착형 사찰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밀착형 사찰의 모범사례는 남원 실상사와 여수 석천사. 실상사는 귀농학교나 지리산살리기 운동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을 계도하고 지역주민의 이슈에 결합하면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수 석천사는 시민운동 참여와 자원봉사 등 실천모델과 교리교육 의무화 등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신도를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사찰별 특성활동 모범사례는 포항지역으로 옥천사는 유치원 및 어린이법회 운영, 죽림사는 청소년및 불교대학 운영, 문수사는 교사불자회등 계층포교, 운흥사는 사회복지법인 열린 가람과 학산사회복지관 운영등 사찰별 특성활동을 전개하며 상호보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표 참조>

지역민에 열린마당
'봉사의 삶' 이끌고
시민운동 참여 유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찰이 지역내 위상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민과의 관계설정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서는 전반적으로 타종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불교강세지역 사찰보다 기독교 강세지역의 사찰들이 오히려 모범적인 사찰운영과 신도교육, 포교활동에 더 적극적인 점이 특징이다.

지역사찰 운영현황

지역	사찰	지역특성	사찰재정	팔요조직	종교현황	특 징
예산	향천사	사과농사	공개	불자교사회	비등	유치원 운영
아산	옥련암	관광특구	공개	교육기관 기독교	강세	청소년포교 활성화
고성	운흥사	도농지역	공개	불자교사회 불교	우세	지역시민단체 연계
	옥천사	관광지역	비공개	신도조직 불교	우세	관람료사찰
진주	두방사	도시지역	비공개	일요법회 불교	우세	유치원 운영
마산	정법사	도시지역	공개	스탭진영 불교	우세	무료급식소 운영
함양	법인사	농촌지역	비공개	중고등부 불교	우세	어린이법회 운영
거창	심우사	농촌지역	비공개	청년회	불교우세	전법도량 지정
남원	실상사	농촌지역	공개	지역신도회	기독교 강세	생태학교 운영
여수	석천사	도시지역	공개	사암연합회	기독교 강세	4개 복지관 운영
포항	문수사	공단지역	비공개	공무원회	불교우세	계층포교
	옥천사	공단지역	비공개	교육기관	불교우세	유치원 운영
	죽림사	공단지역	비공개	중등부	불교우세	불교교양대학 운영
	운흥사	공단지역	공개	교육기관	불교우세	사회복지법인 운영
울진	불영사	해안지역	비공개	환경단체	기독교 강세	10개 지역법회 운영
	통림사	도농지역	비공개	문화단체	기독교 강세	문화센터건립 계획
안동	대원사	도시지역	비공개	중고청년회	기독교 강세	대원불교대학 운영
영주	영전사	도농지역	비공개	청년회	기독교 강세	어린이집 운영
봉화	청량사	농촌지역	비공개	청년회	불교우세	출장법회 운영

특히 지역사찰간 유기적 협조체계와 신도조직이 부실하고, 잦은 주지교체로 인한 종무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포교원은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찰 협의체 형성 △사찰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전략적 포교대상의 선정 △청년포교의 활성화 △신도교육 강화 △사찰재정의 지역회향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원우기자(wwkim@buddhapia.com)

2001년 '지역문화의 해'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해 8월 문화예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했다.

문광부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민들이 문화자산을 창조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인에 대한 지원확대, 지역문화 유산의 보호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찰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수원불교연합회(회장 성관스님)가 수원환경운동센터와 공동주최한 '우리꽃 심기 생태방생' 장면.

사회복지 활동
생태사찰 만들기
지역연대 강화

사찰 NGO 시대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이 '사찰 사회활동 모델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복지 · 생태 · NGO분야 등에 지역 사찰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활동, 생태사찰 만들기, 지역연대활동 등 세 영역으로 나눠 추진될 이 사업은 사회복지재단, 중앙신도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두레생태기행 등 10여개 사찰 및 사회단체를 연구조사팀으로 편성, 영역별로 전개된다.

먼저 사찰 사회복지활동 영역은 조계사, 부천 석왕사 및 사회복지재단 실무자들로 구성된 연구조사팀이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설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양사회복지관, 영등포 보현의 집, 낙산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조계사는 시설물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체계화해, 사찰의 복지활동 새 모델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어 생태사찰 만들기 영역은 사찰환경위원호를 결성한 남원 실상사와 생태사찰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길상사 등 기존사찰과 동국대 이영경교수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국장 등 사찰 생태와 조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2~3개의 사찰을 선정해서 해우소 등 사찰 내 제반 살림부터 사찰조경, 정화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찰을 둘러싼 생태문화적 요소들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지난해 사회부가 주최한 사찰생태문화기행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생태사찰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사찰과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해당사찰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불교교리강좌를 개설하는 등 신도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대활동을 폄으로써 사찰과 지역간에 안고있는 환경문제 등 현안들을 푸는 방안을 제시한다.

조계종 사회부 윤승환 주임은 "사회적으로 NGO운동이 확산돼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찰의 사회활동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사찰의 사회활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불교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3월부터 전국 본말사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찰 사회활동 모델개발 사업'은 2월까지 대상사찰의 표본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갖고 향후 종단 종책에 반영하게 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사암련 위상 키우자"

전문가의 눈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포교사회학과

지역불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대만의 자제정사와 울진의 불영사 등 두 사찰을 거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제정사는 30여 년의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병원과 각종 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세계 43개국의 빈민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불영사는 천년 이상의 고찰로서 그 동안 전통적인 수행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최근에 이르러 읍면 단위로 10개의 지역조직을 구성해 단위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10%를 신도로 확보할 만큼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 두 사찰의 공통점은 주지스님의 지도력이 지역주민의 정신적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신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의 문화와 종교적 양태는 다르지만 두 사찰은 지역불교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할만하다.

지역중심의 전통이 있는 한국불교의 각 사찰들은 근세기에 이르러 중앙집권적 운영체계를 띠게 되었다. 일본의 강점기에 불교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중앙집권적 종권구조가 해방이후 국가의 통치구조에 영향을 받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결과 단위 사찰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최근 5년 동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각 지역의 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찰들은 그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종교 사회에서 지지기반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요 본사급 사찰들이 관광객의 관람료 수입에만 의존하여 지역포교를 등한시한 결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불교계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불교를 활성화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조직체계의 정비, 인적자원의 육성,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직능 – 연령별
신도조직 구축

불교계의 각 종단과 소속 사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종단의 경우 교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와의 관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종무원제를 채택한 종단들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계종단의 경우 본사의 영역을 조정하고 행정지역별로 특정 사찰을 선정하여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광역 행정단위를 관할할 수 있는 중심사찰과 기초 행정단위를 관할할 수 있는 거점 사찰을 정하고,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 연합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암연합회의 기능이 더 종적 횡적으로 연계된 지역사찰 공동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단위 사찰의 신도조직이 제대로 구성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사암연합회와는 별개로 여러 분야의 지역 신도 연합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직능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신도 조직도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직운영은 스님을 비롯한 불교지도자의 지도력과 신도의 추종력이 결합될 때 효과적이다.

단위 사찰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인문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환경운동, 문화예술 시설 및 단체 육성 등을 통해서 지역의 정신 및 문화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포교가 활성화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신도조직이 없고 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없다면 지역불교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각 사찰이 특성을 띠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때 지역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내설악산
백 담 사
주 지 일문외
대 중 일 동
산내암자
봉정암 감원 근행
오세암 감원 일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번지
전화 : 033) 462-6969
팩스 : 033) 462-3224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주 지 지 홍
대 중 일 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전화 : 033) 672-2448

대한불교조계종
심 원 사
주 지 정영도
대 중 일 동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호1리 72
전화 : 033) 455-5882

대한불교조계종
두타산 삼 화 사
주 지 원 명
대 중 일 동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전화 : 033) 534-7661~3
팩스 : 033) 534-7546